

몽블랑 Mont-Blanc

‘브랑제리’, ‘앙베르’, ‘아비앙’, ‘몽테도르’ 등 제과점 상호를 보면 프랑스어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베이커리가 외국에서 들어온 문물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이에 프랑스 말로 된 제과점 상호의 유래와 어원, 의미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몽블랑’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간에 잘 알려진 말이다. 철자를 보면 ‘Mont-Blanc’으로 쓰인다. 이 말은 제과점 상호로 뿐만 아니라 유럽의 어느 만년필 브랜드로도 사용되고 있다. 제과제빵 분야에서는 ‘크림을 입힌 밤과자’를 지칭하기도 한다. 실제로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국경에 위치하고 있는 해발 4,807m의 알프스 산맥 최고봉을 뜻한다. 프랑스 말로는 ‘Mont-Blanc(몽블랑)’이라고 하고 이탈리아 말로는 ‘Monte Bianco(몬테 비앙코)’라고 한다. 이 몽블랑산을 관통하는 몽블랑 터널은 길이가 11.6km에 이르는데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 터널로써 프랑스 사람인 G. 드레피네가 제안했고 1958년에 착공, 7년의 공사 끝에 1965년 7월에 개통됐다. 이 터널은 도로 터널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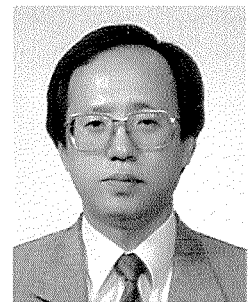
필자는 이 터널 건설 당시 프랑스쪽에서는 프랑스 사람들이 파 들어가고, 이탈리아 쪽에서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굴착해 들어가다가 산속 지하의 중간 지점에서 착오없이 서로 관통하게 되었을 때 양국의 근로자들이 서로 만나 환호성을 지르며 축배를 드는 감격의 장면을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난다. 필자는 이 신문을 보며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로 관통하게 되었는지 감탄의 미소를 지었다. 이 터널의 개통 이후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로 쳐들어갈 때 왜 힘든 알프스 산맥을 넘어 갔을 까요?”라고 유머 퀴즈를 던지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질문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때는 몽블랑 터널이 없었거든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산’은 프랑스 말로 ‘Mont(몽)’이라고 한다. 프랑스 말을 발음하는 대원칙 중의 하나는 단어의 끝에 붙는 자음은 발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Mont’에서 끝 자음인 ‘t’를 발음하지 않고 ‘몽’으로 발음한다. ‘Blanc’에서도 끝 자음인 ‘c’는 발음하지 않고 ‘블랑’으로 발음한다.

‘Blanc(블랑)’의 뜻은 ‘하얗다, 희다’라는 뜻으로 품사는 형용사이다. 프랑스어에서 형용사는 명사 다음에 주로 오므로 명사인 ‘몽’ 뒤에 형용사인 ‘블랑’이 온 것이다. 따라서 ‘몽블랑’은 ‘흰 산’이라는 뜻이 된다. 몽블랑은 해발이 높아 꼭대기가 늘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푸른 산’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면 ‘mont bleu(몽 블르)’라고 한다. ‘bleu’에서 복합 모음인 ‘eu’은 (외)로 발음된다. 그래서 (블외)로 발음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한 백포도주 브랜드를 보면 한글 철자를 ‘몽 블르’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필자도 몽 블르라 표기한 것이다.

경상남도 지리산 자락에 있는 산청군에 포도단지가 있는데 이곳 산청(山淸)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면 ‘mont bleu’가 된다. 이를 대문자로 쓰면 하나의 상품 브랜드로서 고유명사가 된다. 따라서 이는 우리말을 프랑스어로 직역하여 만든 말이라는 것을 귀띔하는 바이다. 즉 지명인 산청(山淸)을 ‘산청(山淸)’으로 조금 고쳐서 ‘Mont(몽)(山) Bleu(블르)(靑)’라는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이다.



□글/ 김재열

필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를 수료했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부 차장을 역임했다. 현재 프랑스 소시에테 제네랄 은행 서울지점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랑스 말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칼럼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